

## (2)형 한국실용글쓰기 객관식·서술형 정답 및 해설

### ◆ 객관식 영역 (400점) ◆

문항	1	2	3	4	5	6	7	8	9	10
정답	①	①	⑤	③	②	②	①	④	④	③
문항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정답	④	①	②	③	④	④	⑤	④	③	②
문항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정답	④	③	③	④	⑤	④	②	⑤	④	③
문항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정답	⑤	④	①	⑤	③	②	③	④	④	③
문항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정답	③	⑤	③	②	③	②	⑤	④	④	⑤

1. 정답: ①

- ▶ 해설: 해당 글은 특허청이 특허분석평가시스템의 정제된 데이터 일체를 민간에 개방한다는 내용이므로 정답은 ①번이다.

2. 정답: ①

- ▶ 해설: ㉠~㉣에 접속사가 없으면 문단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적절한 접속사를 사용하여 글의 응집성을 높여주는 것이 좋은데 ㉠에는 ‘어떤 것을 전제로 그 위에 더’를 의미하는 접속사, ㉡에는 앞에 제시된 내용에 따라, ㉢은 ‘동시에 함께’라는 뜻의 접속사가 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므로 정답은 ①번이다.

3. 정답: ⑤

- ▶ 해설: 요지를 기반으로 볼 때 첫 번째 문장의 내용인 권력과 금권이 판치는 한국의 사회적 현실이 서론, 그리고 마지막 문장인 한국의 정치인에 대한 내용이 결론에 오고 ‘그러나 ~ 모여들고’까지의 내용이 본론에 적합하다. 그러므로 ⑤의 내용은 결론에 적합하다.

4. 정답: ③

- ▶ 해설: 정답은 ③번이다. ①번은 사후에 해결책을 구한다는 속담이고, ②번은 아쉬운 사람이 방법을 찾는다든 속담, ④번은 아무리 큰일도 작은 일부부터 차례차례 해야 한다는 속담, ⑤번은 한번 놀라고 나면 그 비슷한 것만 보아도 놀랄 수 있다는 속담이다.

5. 정답: ②

▶해설: 정답 ②번. '이라고'는 인용격조사로 이미 적절하게 쓰인 조사이므로 고쳐 쓸 필요가 없다.

6. 정답: ②

▶해설: '① 연수 보고서'는 본문에서 2문단 1줄에 있는 '목적에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의 방법으로 쓴 제목이고, 나머지 선택 지문은 너무 길거나 추상적인 단어를 사용하였다. ㉠의 방법으로 쓰자면 다음과 같다. '③ 영업 연수회 참가 보고 ④ 원자재 구입을 위한 북경 출장 보고 ⑤ 휴대폰 이용 실태에 관한 조사 결과'로 써야 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을 표현한다.'로 쓴 보고서 제목의 정답은 ②번이다.

7. 정답: ①

▶해설: 정답 ①번. ②번, '-든지'는 '어느 것이 선택되어도 차이가 없는 둘 이상의 일을 나열함을 나타내는 보조 사'이다. '막연한 의문이 있는 채로 그것을 뒤 절의 사실이나 판단과 관련시키는 데 쓰는 연결 어미'인 '-던 지'라고 써야 한다. ③번, '-으로부터'는 영어 'from'을 직역한 말이다. '-에서'로 바꾸어야 자연스럽다. ④번, 직접 인용은 '-라고', 간접 인용은 '-고'라고 쓴다. '-고'라고 고쳐 써야 한다. ⑤번, '-(으)로서'는 자격을 지닐 때 쓴다. '여당은 ~'이라고 써야 한다.

8. 정답: ④

▶해설: 주어진 글은 서사적 구조를 가진 글로서 본문에 제시된 연도의 순서에 따라 나열하면 된다.

9. 정답: ④

▶해설: 정답은 ④번이다. (가)는 정치를 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도덕법이나 윤리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뜻의 문장이다. 그러므로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한 후인 ④에 해당 문장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10. 정답: ③

▶해설: 정답 ③번. ①번, '하찮아 보이는'을 '하찮게 여기는'으로 고친다. ②번, '해체해야 한다는 것이다.' ④번,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⑤번, '대출을 잘 해주지 않던 은행들도'

11. 정답: ④

▶해설: 윗글의 내용을 살펴보면 민본 정치에 대한 기술이 나와 있으므로 윗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이다.

12. 정답: ①

▶해설: ㉠은 민본 정치 정신을 계승한 민주주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민본 정치를 나타내고 앞부분의 '자기 몸처럼'이라는 내용을 살펴보면 ①이 정답임을 알 수 있다.

13. 정답: ②

▶해설: 정답은 ②이다. 주어진 문장에서는 '위하여'와 관련된 내용이 (나)의 앞 문장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해설이 뒤따라오는 것이 적절하다.

14. 정답: ③

▶해설: 정답은 ③번이다.

'하다'와 결합하여 타동사가 되는 명사에 '시키다'를 붙일 이유가 없다.

15. 정답: ④

- ▶ 해설: 정답 ④번. 위 문서는 작성 주체에 따라 구분할 때 사문서가 아닌 공문서이다. 공문서에 대한 설명이다. ①번, 처리 단계에 따른 분류에서 접수 문서에 대한 설명이다. ②번, 처리 단계에 따른 분류에서 공람 문서에 대한 설명이다. ③번, 성질에 따른 문서 분류에서 민원 문서에 대한 설명이다. 위 문서는 일반 문서이다. ⑤번, 수신 대상에 따른 분류에서 대내 문서, 즉 내부 결재문서에 대한 설명이다, 위 문서는 대외 문서이다.

16. 정답: ④

- ▶ 해설: 정답 ④번. '제출하고자 합니다.', '제출하려고 합니다.' 모두 내부결재 문서에 사용하는 표현이다. '제출합니다.'라고 고쳐 적어야 한다.

17. 정답: ⑤

- ▶ 해설: 정답 ⑤번이다. ①, ②번은 자기개발능력, ③,④번은 문제해결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항이다.

18. 정답: ④

- ▶ 해설: 정답 ④번. 경력사항은 경력직에 응시한 것이 아니라면 직무와 직접 1:1로 관련이 되지 않은 것을 써도 된다. 인사담당자도 신입직이라면 직접 직무 경험이 없거나 크게 부족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므로 유사 직무 경험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19. 정답: ③

- ▶ 해설: 정답은 ③번이다. 출장 인원은 부서원 3명과 기안자가 함께 가는 것이므로 4명이다.

20. 정답: ②

- ▶ 해설: 정답 ②번이다. 유럽 각국의 축제 현황과 영국에서 유로화가 통용되는 지역은 기안서에 들어갈 필요 없는 내용이다.

21. 정답: ④

- ▶ 해설: ①번, '5월 20일'은 체육대회 개최일이다. ②번, '23주년'이 아니고 25주년이다. ③번, 해당 글은 안내장이 아니고 기안문의 초안이므로 잘못되었다. ⑤번, '축구, 족구, 발야구, 피구, 줄다리기'는 경기종목 등의 항목에 쓰는 것이 적절하고 팀 구성 내용에는 해당 부서와 인원 등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므로 정답은 ④번이다.

22. 정답: ③

- ▶ 해설: 정답은 ③번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우선이므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써야 한다.

23. 정답: ③

- ▶ 해설: 정답은 ③번이다. 전시회에 대한 관람 안내문이므로 관람할 수 있는 기간, 시간, 장소를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기간과 장소는 나와 있으나 시간은 전시 설명에 대한 시간만 나와 있지 관람 시간은 나와 있지 않다.

24. 정답: ④

- ▶ 해설: 정답 ④번. ㉠ 글에서는 회사가 발표 방식을 정해주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자신이 결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자신의 장점과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25. 정답: ⑤

▶ 해설: 정답은 ⑤번이다. ㉠항목에 넣을 수 있는 내용이다. 전체 내용을 포괄하는 항목이라면 어느 한 항목에 국한되지 않고 ㉡, ㉢, ㉣의 내용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내용이 와야 한다.

26. 정답: ④

▶ 해설: 정답은 ④번이다. ④의 경우 (다)조항을 충실히 지켰으므로 계약위반이 아니다. ①은 (마)조항을 위반하였다. 1/4분기의 청구는 종료일 즉 3월 31일 후 10일(4월 1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②는 (라)조항 위반이다. ③은 1월 25일에 청구했으므로 14일 이내인 2월 7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⑤은 (마)조항을 준수하였으나 갑은 (바)조항을 위배하였다.

27. 정답: ②

▶ 해설: 정답 ②번. ①번은 인터뷰 기사문에 대한 설명이다. ③번, 안내문과 같은 공지글에 대한 설명이다. ④번, 설명서에 대한 설명이다. ⑤번, 윗글은 역피라미드형이다. 독자가 전체를 다 읽지 않고 요약 부분만 읽어도 전체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이다.

28. 정답: ⑤

▶ 해설: 정답 ⑤번. ㄱ. 부제는 표제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 ㄴ. 전문은 보통 한 문장으로 쓰긴 하지만 필요한 경우 문장 수를 늘릴 수 있다.

29. 정답: ④

▶ 해설: 정답 ④번. ㉠과 ㉡은 부제로 적절한 내용이므로 모두 (나)에 쓰는 것이 적절하다. ㉢은 표제로 적절하다. (가)에 써야 한다. ㉣은 전문으로서 윗글의 첫 문단에 써야 한다.

30. 정답: ③

▶ 해설: 정답 ③번. 하나의 기획서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으면 기획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지므로 기획 의도가 상대방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다. 하나의 목적에 집중해 기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31. 정답: ⑤

▶ 해설: 정답 ⑤번. ㄱ. 기획서는 상대방을 설득하고 그에 대한 결정을 내리도록 만드는 글이지 상대방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글이 아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담아 길게 쓸 필요가 없다. 읽는 사람의 시간을 배려해 가능하면 한 장으로 끝내는 것이 좋다.

32. 정답: ④

▶ 해설: 정답 ④번. ①번은 기안문, ②번은 감상문, ③번은 비평문, ⑤번은 안내문이나 공지문의 서술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33. 정답: ①

▶ 해설: 정답 ①번. ㉠-용량과 함께 용법도 제시되어 있으므로 ‘용법•용량’으로 적어야 한다. ㉡ - ‘저장 방법’이라고 적어야 한다. ㉢ - ‘포장 단위’라고 적어야 한다. ㉣ - ‘판매원’으로 적어야 한다.

34. 정답: ⑤

▶해설: 정답 ⑤번, ㉮은 '저장 시 주의 사항'에 써야 할 내용이다.

35. 정답: ③

▶해설: 정답 ③번. 현상의 원인을 정리하고 있으므로 결론에 쓸 수 있는 내용이다. ①번, '~참조해보기로 하자.'는 서술어로 볼 때 본론에 쓸 수 있는 내용이다. ②, ④번, 서론의 '연구 목적' 부분에 쓸 내용이다. ⑤번, 서론의 '연구 방법' 부분에 쓸 내용이다.

36. 정답: ②

▶해설: 요약 부분의 내용을 읽어보면 본 특허 명세서의 고안 명칭은 '흡입형 전동 지우개'임을 알 수 있다.

37. 정답: ③

▶해설: 정답 ③번. '성공의 기준'이라는 항목에 어울리는 내용이면서, '전략적 강조'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내용과 관계가 있으므로 가장 적절한 내용이다. ①, ④번은 '성공의 기준'이라는 항목에 맞지 않는 내용이다. ②, ⑤번은 '가' 내용과 중복될 뿐만 아니라 '전략적 강조' 항목의 점수를 고려할 때 높은 점수를 받을 만한 내용이다.

38. 정답: ④

▶해설: 정답 ④번. 인적자원개발, 신뢰, 개방성, 참여를 강조하면서 이를 기준으로 성공을 평가한다는 데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점에서 ○○기업의 문화가 관계지향적이며 인간애를 중시하며 조직 내부의 통합과 유연한 인간관계를 중시함을 알 수 있다.

39. 정답: ④

▶해설: 정답은 ④이다. 선박의 길이를  $x(m)$ 라고 하면 이동 거리는 각각  $1000+x(m)$ ,  $2000+x(m)$ 이고 속력은 일정하므로  $\frac{1000+x}{28} = \frac{2000+x}{53}$ ,  $x=120(m)$ 이다.

40. 정답: ③

▶해설: 정답은 ③번이다. 하찮은 일, 우편물, 소모적인 일은 긴급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일이다.

41. 정답: ③

▶해설: 정답은 ③번이다. ①번은 적재적소 배치의 원칙, ②번은 공정 인사의 원칙, ④번은 공정 인사의 원칙, ⑤번은 창의력 계발의 원칙이다.

42. 정답: ⑤

▶해설: 정답은 ⑤이다. 주어진 자료를 보면 2015년 대졸자가 2005년과 다르게 늘어났고, 월세 가구와 전세 가구를 비교해보면 월세 가구가 전세 가구를 앞질렀다. 그리고 미혼 인구 비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미혼 여성의 결혼 비율을 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미혼자 비율이 높았다.

43. 정답: ③

▶ 해설: 정답은 ③이다. 주어진 자료에는 전체 1인가구 수만 제시되어 있고, 항목별 수는 제시되어 있지 않고 2015년 기준 비율만 제시되어 있다.

44. 정답: ②

▶ 해설: 정답은 ②번이다. 서류를 정리하기 위해 천천히 하나하나 숙독하는 것은 올바른 시간 관리 방법이 아니다.

45. 정답: ③

▶ 해설: 정답 ③번. 수식대로 풀어보면  $x = 40$ 이 나온다. 따라서 평소 걸린 시간은 40분, 거리는 40km임(시속 60km로 한 시간을 간다면 거리는 60km이므로)을 알 수 있다. 김○○ 대리는 식을 바르게 세워 계산을 다했지만 위 문제의 메모는 중간 부분을 잘못 옮겨 쓴 것이다.

46. 정답: ②

▶ 해설: 정답은 ②번이다. ①번, 상품 ㉠의 연간 판매량은 260, 상품 ㉡의 연간 판매량은 285으로 25의 차가 있다. ③번, 상품 ㉠과 상품 ㉡의 판매량의 차가 가장 큰 계절은 봄으로 50이고 여름은 40이다. ④번, 상품 ㉠과 상품 ㉡의 판매량의 합이 가장 적은 계절은 봄으로 110이고 겨울은 155이다. ⑤번, 상품 ㉡의 봄과 여름의 차가 60으로 상품 ㉠의 30보다 더 크다.

47. 정답: ⑤

▶ 해설: 정답 ⑤번.

임의가입자 수가 아니라 임의가입자율이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48. 정답: ④

▶ 해설: 정답은 ④번이다. 해당 설명은 경영참가제도에 대한 것으로 경영참가제도를 통해 분배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

49. 정답: ④

▶ 해설: 정답은 ④번이다. (가)에는 기업의 중요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예방해주는 보안 USB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④번에는 보안 USB가 있어도 결국의 기본 보안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가) 문단 이후에 언급되는 내용이므로 (가)에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50. 정답: ⑤

▶ 해설: 정답은 ⑤번이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생각한 후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 서술형 영역 (600점) ◆

1. 몇 일 → 며칠 / 결제 → 결재 / 지양점 → 지향점 / 뵙겠습니다. → 뵈겠습니다.
2. ㉠ 안내, ㉡ 일시, ㉢ 장소, ㉣ 대상, ㉤ 주관(또는 주최).
3. 강사원은 헌신적이며, 스스로 생각하고 알아서 행동할 줄 안다는 점에서 모범형 팔로워라고 할 수 있다.
4. ㉠: 간단보고, ㉡: 실무보고, ㉢: 간단보고
5. ㉠ 위조, ㉡ 변조, ㉢ 표절, ㉣ 중복 게재 ㉤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 버튼을 누르거나 조이스틱을 상, 하, 좌, 우 움직여 미니빔 TV를 작동할 수 있습니다. ㉡ 전원 켜짐 / ㉢ 전원 꺼짐 / ㉣ 음량 조절 / ㉤ 채널 변경 / ㉥ 조이스틱 버튼을 누르고 움직일 경우 음량 조절 및 채널 변경이 안 될 수 있습니다.
7. 지적재산권법을 배워서 회사의 실무에 응용하려고 했던 나에게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의 강의는 아주 흥미로웠다. 게다가 이 법의 기본적인 개념이나 원칙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었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이 한층 넓어졌다.
8. 회사의 인지도를 높이고 싶은데, 제대로 된 홍보활동이 어렵다면 전화 한 통으로 홍보전문가와 함께 기업 홍보를 진행해보세요. 바로 1357콜센터에서 기업의 궁금증이나 애로사항을 전화 상담과 전문가 심층 상담을 통해 완벽 해결해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면 기업 이미지 제고로 매출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9. (가) 유행성 독감이란 무엇일까.  
(나) 유행성 독감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다) 독감 예방주사는 해마다 맞습니다.  
(라) 독감에 걸리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 독감 예방주사를 맞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0. 사상 최악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으로 도살 처분된 가금류 수가 3천만 마리를 넘어섰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초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신고 이후 1월 4일 현재 전국적으로 도살 처분된 가금류 수는 3천 33만 마리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 전체 가금류 사육 규모(1억 6,525만 마리)의 18%를 웃도는 수준으로 지난 2014~2015년에 517일간 1,937만 마리가 도살 처분된 것을 고려하면 이번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는 역대 최악의 피해를 기록하고 있다.

다만 신규 의심 신고가 지난달 말부터 일주일 가까이 0~3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은 그나마 긍정적이다. 지난달 조류인플루엔자(AI)가 한창 퍼지던 시기에는 신고 건수가 10~14건에 달했으나 의심 신고가 점차 줄어들어 다소 진정국면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정부는 달걀 가격의 폭등과 공급 부족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3일 국무회의에서 달걀과 달걀 가공품 관세율을 0%로 낮추는 긴급할당 관세 규정을 의결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관세율이 8~30%였던 신선란 등 8개 품목 9만 8,000t을 4일부터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다. 이번 긴급할당 관세 조치는 오는 6월까지 적용된다. 또한, 정부는 생산기반에 타격을 입은 산란계(알 낳는 닭)를 조기에 공급하기 위해 살아있는 병아리를 항공기로 수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이날 정부청사에서 브리핑하고 “달걀의 국내 소비자 가격이 1개에 270원대인데 현재 가격 수준으로는 당장 수입이 어려울 것 같다. 가격이 폭등해 300원까지 올랐을 경우 항공료 50%를 지원하면 수입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발표한 달걀값 안정책은 국내산 달걀값을 진정시키는 근본대책이라기보다 300원대 이상으로 가격이 급격히 오르지 못하게 묶어 놓으려는 교육지책으로 풀이된다.